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현장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제196회 정례회 회기 중인 가운데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

방문사업장은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접수관, 석제품 전시홍보관, 합다 한옥체험단지, 옹포 캠핑장,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보석박물관 등 7곳으로, 관련부서로 부터 추진상황 등을 설명 듣고 철저한 관리 및 개선사항 등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준공 및 개관 예정인 사업장의 추진실태 파악 및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접수관의 오는 8월 준공 및 10월 개관 예정의 추진실태 등을 설명 듣고 기존 시설 및 운영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공무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들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11일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270여명의 직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0개 농가에 대해 긴급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익산시는 청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350여명의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직원들은 이날 침수된 하우스에서 메론, 수박, 상추, 토마토 등의 작물을 걷어내고, 하우스 비닐과 유입된 쓰레기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호우피해로 인해 상심이 큰 농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군산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7월 중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 5장, 5㎡미만 8장을 수거해 으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 30cm×40cm이상 20장, 30cm×40cm미만 30장을 수거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전단 21cm×18cm이상 50장, 21cm×18cm이하 200장(명함식 포함)을 수거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집수는 동지역 주민센터(읍·면지역 제외)에서 가능하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보상 장수만큼씩 묶어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지방세 안내 카톡 서비스

군산시가 효과적인 지방세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Kakao Talk)에 옐로아이디를 개설, 시민과 소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지방세 분야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방곡민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개설했다.

군산시 지방세 소식은 카카오톡 친구검색란에 '군산시 지방세'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하면 쉽게 친구추가가 가능하다.

친구추가를 맺은 카카오톡 사용자는 군산시가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에 관한 소식을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1일 정식 오픈 이후에는 1:1 메신저 상담도 가능하게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농축산검역본부 가축 소독약품 효력시험 영세제조업체 도산위기

임의 수거 함량미달 품목 자진 취하·판매정지처분 내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에 쓰여 자는 172개의 소독약품에 대해 기존 판매된 임의의 수거해 함량 및 효력시험을 실시해 관련업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실험결과에 따라 수의소독약품에 대한 함량미달 품목의 자진 취하와 효력미달품목의 판매정지처분 등으로 영세동물약품제조업체의 도산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된 영세동물약품제조회사 중 A사는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 검역본부에 제품효력시험검사 업체인 국립 수의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시험성적 결과에 의해 검역본부가 허가를 내주고 소독약품 사용설명서 라벨에도 그 내용대로 기재해 축산농가 및 관계 기관 등에 납품 판매한 것인데 임의의 수거해 함량 검사 및 소독약품 시험 등을 실시해 함량미달은 제조회사의 자진 품목취하 조치를 한 것은 법적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 허가된 관장희석배수로 효력시험은 효력시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해 8월달부터 정지처분을 한 것에 대한 영세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정지품목을 생산판매한 영세 동물약품제조업체는 제품수익 및 제품판매량을 받기 위한 수의대 실험 검증 절차를 하기 위해 3천만 정도의 운영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기 납품 판매한 재고 소독약품 수거하거나

돈으로 변제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A제조회사는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진상조사 및 업체보호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검역본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제 172개 품목에 대한 함량 및 효력 전수 조사 실시한 결과 함량 부적합 3품목, 소독 효력미흡 26품목(구제역 A1 중박 2품목)이 나왔다고 지난 6월 17일 보도했다. 효력미흡 제품의 허가 당시 국내 대학에서 효력시험을 수행했고 제조업체가 효력시험 실시기관과 계약을 맺고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허가 신청 시 검역본부로 제출하고 있다고 했고 이에 해당 검사기관(효력 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자료는 조사 등을 완료하고 필요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함량미달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정은 약사법 제76조 제항 동물용의약품특허규칙 제22조 제항 및 약사법 제71조(폐기명령 등) 제1항과 제2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조항 외에 약사법 제9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제항 동물용의약품특허규칙 제26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제2항 내지 제6항 근거 등을 밝혔다.

제품판매정지 업체 보호차원의 대책

과 정지기간 지난 후 제품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관련 제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처음 연구업체에 실현성적결과 확인 점검해서 허가 내준 검사담당자 및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로부터 답변했지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해서 허가해주고 누가 책임을 지어하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효력 미흡 제품에 대한 허가 자진 취하를 유도한 법적근거는 근거 규정 없이 강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업체에서 설정한 권장희석배수에서의 효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자진 취하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검역본부에서 소명한 자료에서 보면 소독약품에 대한 효력미달에 대한 조치는 정확히 적시되지 않고 확대해서 해석 적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약사법에 명시된 불완전약품으로 인식해서 판매중지를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영세동물약품제조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물약품제조업체에서는 약사법 제66조의 의약품(소독제)에 대한 조항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정확한 법적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사드배치 절대 안돼!”

반대위, “새민금 개발 파탄 초래”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놓고 후보지로 거론된 군산에서의 반발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 11일 오전 군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한국배치결정철회촉구”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날 대책위는 “한·미당국의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드 군산배치 반대 운동을 강력히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드 한국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드배치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군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중 경협을 통한 새민금개발은 파

탄나게 되고 중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관광도시로의 군산 이미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예상되는 군산 미군기지 5.5km 반경 내에 새민금국가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구 등이 자리하고 있어 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북도와 군산시,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정치권은 사드배치 반대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사드 군산배치 저지를 위한 민·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산비공개기 앞에서 캠페인과 집회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시장 주재로 국·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군산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6년 군산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부서별 세부 이행과제와 전국의제지도 개선 사항,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와 법령 개선 등에 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각 부서장들의 보고를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 ▲규제개혁 성과 인센티브 지원계획 마련 ▲생활불편규제 신고센터 운영(30개소)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추진(28개 항목 친화도 개선)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유수면 점 사용 승인행태 개선 건의(지역경제과) 등 법령개선

건의(4건) ▲생활불편규제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읍면동 행정행정 등 생활불편 규제발굴(15건) 등이 보고됐다.

이어 21개 이행부서 과제의 ▲군산시 규제개혁 종합계획 추진사항 ▲과도한 자차법규 제 개정 등 규제개선 사항 ▲중앙법령(제20)개선 건의과제 발굴사항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군산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하반기 이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자체점검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행정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중앙 평가에서 타 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에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우수’

군산시(시장 문동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공무원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맑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적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실시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결과 기관평군은 10점 만점에 9.4점으로 간부공무원의 청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현재와 과거 2년 사이에 같이 근무한 688명의 직원이 평가

에 직접 참여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평가 내용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치,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의 업무처치, 공정한 직무수행 등 19개 항목으로 공직자 청렴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평가결과 국장급 공무원은 김경연 건설교통국장, 분청 과장으로는 양주생 건설과장, 윤·면·동장은 고대성 나운동장이 청렴 우수간부공무원으로 평가됐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 500만원 확보

군산시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500만원을 확보해 고품격 시장 운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수차례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꾸준한 설명과 설득을 반복해 온 결과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는 현안사업 추진에 송풍이 트임 전망이

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 10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5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신축의 경우 잔여 공사비 10억원이다.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병예의 전당’을 설치해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로명판 확충을 통해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섬 지역 피해 속출

방문객들 공동어장 양식 어패류 무단 채취·초등학교 주차장 전락

고군산연결도로의 개통에 따른 섬 지역의 육지화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신시도와 무녀도는 갯벌에서 바지락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갯벌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어업면허지’이다.

최근 신시도와 무녀도 주민들은 마을 공동어장에서 기르고 있는 바지락 등 어패류 지킴이게 비상이 걸렸다.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되자 방문객들이 무단으로 양식장에 들어가 바지락을 채취해 이웃 주민들이 생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서해인의 물때에 맞춰 야간에 갯벌에 들어가 섬 주민들이 일궈놓은 바지락을 무작위로 채취해가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방문객을 가장한 전문 절도범들이 마을 공동어장에 무단 침입해 어패류를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자체 순찰소를 편성해 주·야간순찰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8월 신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바지락 채취로 인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무녀도 주민들은 “일부 사람들은 마치 다리가 개통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갯벌이 드러나는 간조시간에 맞춰 심에 트럭을 이용 대량의 바지락을 훔쳐가는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녀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조용한 섬 마을에 다리가 연결되며면서 차량통행이 크게 증가했으나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무녀도 1구 초등학교 인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안전표지와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 8월 선유도 해수욕장장식에는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초등학교까지 주차장으로 변했고, 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준비되지 않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무녀도 주민들은 생계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등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김모(여)씨는 “육지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다리가 개통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마을공동양양장 인근 해안가에 경교관을 설치하고 해경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CS양성반, 자격시험 응시16명 100% 합격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2016학년도 1학기에 운영한 여대생경력개발 CS양성반 수강생 16명이 과목 이수 후 한국교육자원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CS(Customer Service) 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해 최근 전원이 합격증지를 받았다.

원광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강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직무 탐색과 실습을 비롯해 모든 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 응대 스킬 실무 과정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과목 수강 후 취업에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은 “CS 강사에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론부터 실무까지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원광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강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체계적인 교육과 확실한 커리큘럼을 통해 학점도 이수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황은희 교수는 “센터 교과과 과정 이수와 자격

증 취득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 취업 확대와 전문인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